『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의 東夷意識

方 京 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머리말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만주족[2]은 후금의 계승 국가로 등장하였다. 이 지역을 지배하였던 만주족은 1644년에 남하하면서 明朝를 멸망시키고 동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족과의 동화도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 만주족 지배자들은 민족의 동화를 막으려고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 중에서 청고종(1735~1796)은 언어와 풍속의 유지, 민족 정체성의 확립 등 각 방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만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의식을 제창하였고, 민족의 역사를 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실로 『欽定滿洲源流考』[3]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官撰으로 만주족의 자부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물론 편찬에 있어서 자부심이 과대하게 표현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의식이 돋보인다. 이 민족의식의 핵심은 만주족을 중심으로 韓民族까지 포함하였다.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책은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을 뿐더러 출판도 하지 않았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 책을 사료로 인용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에 대해 가장 일찍 朴殷植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었다.[4] 이후 몇몇 학자가 이 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5] 최근에 한국학자 朴仁鎬는 만주족과 한족을 동일시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滿洲源流考에서는 중원보다 만주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明과 淸朝를 같이 묶어서 언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필자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6] 서양학자 Pamela Kyle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2) 滿洲란 淸皇室에서 사용한 지역과 민족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官撰史書는 「滿洲源流考」이고, 이 책에서 사용한 만주란 용어는 민족과 국가의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이 책에서 만주란 入關전 그들 민족이 기원한 지역과 민족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만주족을 滿族이라 부르고, 만주를 東北三省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滿洲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만주 지역은 동북삼성이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3) 「欽定滿洲源流考」에 대하여 이하 「滿洲源流考」로 줄임.

4) 朴殷植, 「東亞日報」, 1923년 11월 4일. "遼東半島는 本來 우리 祖宗의 舊基이오 余와 淸은 우리 種族의 同系라 乾隆朝에 制定한 「滿洲源流考」로써 불지라도 우리와 同族인 派系를 昭詳記載 하얏고"라고 서술하였다.

5) 金九鎭, 「13-17세기 女眞族社會의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金庠基, 「金의 始祖에 對하여」, 「國史上의 諸問題」 5, 1959.
金渭顯, 「契丹的東北政策」, 台北: 華世出版社, 1981.
李龍範, 「中世東北亞細亞史硏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李東馥, 「東北亞細亞史硏究」, 서울: 一潮閣, 1986.
李東源, 「渤海史譯文集」(譯), 黑龍江社會科學院曆史所. 1986,
朴玉杰, 「高麗時代 歸化人硏究」, 國學資料院, 1996.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3.

www.kci.go.kr

Crossley는 이 책을 만주계승의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肅愼부터 女眞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에 대해 소개하였지만, 淸高宗이 주장한 독특한 東夷意識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울러 만주와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 그다지 중시를 갖지 못하였다.[7] 이 책에서는 만주역사에 대해 기재하였지만 한반도 역사에 대해 빈도 높게 채택하였다.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의식에 연구의 초점을 둔 성과는 아직 없다고 본다.

이 책은 총 4部門으로 구성되었다. 部族門과 疆域門에 민족의식을 집중적으로 반영시켰고, 山川과 國俗에서는 만주족 풍속의 질박함을 내세웠다. 본문에서는 산천과 국속이 민족의식의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분석하지 않았지만, 만주족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현재 만주족과 한족의 동화현상으로 동북아 민족관계를 조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한민족과도 관계가 깊다. 청의 국사 자격을 가진 이 책은 만주족 연구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자료로서 동북아 민족교섭과 이동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청의 민족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책을 편찬한 시대적 배경 하에 만주족이 민족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 사업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편찬에 참가한 인원이 모두 『四庫全書』의 편찬자에 선발된 핵심인물이란 사실을 밝힘으로서 이 책이 국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部族門과 疆域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만주족의 역사체계와 민족의식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체계에서 보이는 한민족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 정리하고, 만주족 역사를 체계화하면서 한민족을 포함시킨 경위에 대해 그들의 민족의식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1. 『滿洲源流考』의 편찬배경

이 책은 청 고종이 재위한 42년 (1777년, 乾隆 42년) 음력 8월 19일에 武英殿大學士 章佳와 阿桂에게 만주족의 기원에 관한 책을 편찬하도록 명을 내리면서 착수하게 되었다. 청 고종은 중원의 전통사서에서 서술된 史實은 중원의 사가들이 만주족의 언어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고 고증이 부족하여 잘못이 많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 잡도록 지시를 내려 불만을 나타냈다. 그밖에 전통적인 華夷觀을 물리치고 淸은 漢唐宋明 등 전통적인 한족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밝혔다. 한족 사관들이 갖고 있었던 華夷觀을 극복하고자 舜과 周文王이 각각 東夷와 西夷라고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東夷族이란 점과 金의 후계자임을 떳떳이 선언하였다.

章佳·阿桂를 보좌하던 대신으로 한족출신의 于敏中과 董誥가 있고, 만주족 출신의 대신으로 청고종의 寵臣 鈕祜祿·和珅이 있었다. 이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經筵官, 翰林院學士, 內閣侍讀 등 35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었다. 이 책은 1778년에 편찬을 마쳤고 고종에게 올려졌다.

淸軍이 入關할 때 청의 지배자들은 東夷意識에 대해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淸 世祖(1643~ 1661)는 燕京에 정착한 후, 한족의 민심을 수습하려고 滿漢의 민족적 차이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통혼도 허락하였다. 順治 5년(1648년)에 내린 詔書에서는 한족을 만주족처럼 대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만주족과 한

6) 박인호, 「明淸代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對朝鮮 역사지리인식 - 조선시기 역사지리연구의 추이와 관련하여-」, 『경북사학』 21기, -金燁博士停年記念特輯號-1001~24쪽. 경북대학교경북사학회, 1998.

7) Pamela Kyle Crossley,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4(November 1987).

www.kci.go.kr

족 사이에서 발생한 통혼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滿漢兩族 관민은 모두 짐의 臣子이다. 만약 두 관민들의 화목을 바란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혼인이다.[8)]

위의 조서에서 강조한 통혼은 청초에 채택한 임시 정책이 아니었다. 만주족이 북경에 정착한 후, 모든 만주족 남자들은 滿八旗에 편입하여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청군의 이동과 함께 중국 전 지역을 轉戰하는 과정에서 만주족 남성은 한족 여성과 혼인하게 되었다. 청세조의 조서는 한족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한 실권자는 청세조의 삼촌인 九王 多爾袞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만주에 귀화한 한족 상인 佟佳씨의 딸이었다.

청조는 건국초기부터 자제들이 한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는데 많은 만주족이 한어를 적극적으로 배웠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雍正 초기에 이르러 집안에서는 만주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한어를 사용하[9)]는 이중언어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만주족 자제들은 청 고종 시대에 이르러 이미 만주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10)]

이러한 현상은 고종 1741년(乾隆 6년)에 반포한 조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만주어는 근본이므로 절대 폐지할 수 없고, 宗室, 章京, 侍衛 등에게 만주어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엄중한 罪로 다스리겠다는 조치를 내렸다.[11)] 집정 후기로 갈수록 金世宗이 취했던 (설명이 필요) 返質還朴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涼棚宴을 자주 열었다. 이 잔치는 가장 추운 겨울날 (長至節) 아침 卯時(6시)부터 辰時(8시)까지 궁전 밖에 설치한 '涼棚'이란 사방이 열린 건물에서 모든 인원들이 땅에 앉아서 凍餑餑(饅頭)과 冰果子를 먹는 잔치였다.

고종은 신하와 종실 자제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면서 만주족의 전통과 과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2)]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종은 만주기원에 대해 체계화하고, 동이의식을 강조한 『滿洲源流考』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 編纂人員에 대한 신분분석

『만주원류고』의 편찬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은 바로 청 고종이었다. 『滿洲源流考』의 편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1773년 (乾隆37년)에 그는 『四庫全書』의 편찬을 착수하였다. 10년이 경과된 47년(1782년)에 이 책의 제1부를 완성하였고, 52년(1787년)에 모든 편찬을 마쳤다. 이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華夷觀의 자극과 민족동화 위기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아울러 『만주원류고』의 편찬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8) 趙杰, 「北京話的滿語底層和'輕音''兒化'探源」, 北京燕山出版社, 7쪽.
1648年(順治5年) 8月,'滿漢官民皆朕臣子, 欲其各相親睦, 莫若使之締結婚姻'란 조서를 내렸다.

9) 季永海, 「大淸全書硏究」, 「滿語硏究」, 1990. 2.
'入則講滿, 出則講漢.'

10) 季永海, 「滿族轉用漢語的歷程與特點」, 「民族語文」 6期, 1993, 11쪽.
'閭巷則滿漢皆用漢語, 從此淸人后生小兒多不能淸語.'

11) 「淸高宗實錄」, 138卷.
淸語尤爲本務 斷不可廢' 宗室 章京 侍衛有不諳淸語 '定從重治罪.

12) 伊永文, 「明淸飮食硏究」,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7, 311쪽.
乾隆皇帝舉辦涼棚宴,在北京最冷的一天(長至節)的卯時(6点)到辰時(8点)在宮殿外搭起的四周敞開的'涼棚',全體參宴人員席地而坐,吃凍餑餑和冰果子.這樣的行爲里包含了乾隆堅持本族的意識.

www.kci.go.kr

『滿洲源流考』와 『四庫全書』의 편찬인원 비교

이름	『滿洲源流考』	『四庫全書』	소속 민족
阿桂	總裁	總裁	△
于敏中	〃	〃	○
和珅	〃	〃	△
王杰	〃	副〃	○
董誥	〃	副〃	○
平恕	總纂校官	永樂大典校勘纂修兼分校官	△
戴衢亨	〃	翰林院提調處	○
麟喜	纂校官	없음	△
呈麟	〃	〃	△
七德	〃	〃	△
馬廷模	〃	〃	△
巴琫阿	〃	〃	△
圖勒炳阿	〃	〃	△
成裕	〃	〃	△
宋銑	〃	翰林院編修	○
曹錫寶	〃	黃簽考證纂修官	○
汪滋畹	〃	內閣中書	○
沈琨	〃	內閣中書	○
曹錫章	〃	翰林院提調處	○
台布	提調官	없음	△
巴尼庫	〃	〃	△
德綸	〃	〃	△
托津	〃	〃	△
孫永清	〃	翰林院提調處	○
吳熊光	〃	〃	○
馮培	〃	翰林院庶吉士今任戶部主事	○
汪日章	〃	內閣中書今任兵部員外郎	○
舒濂	收掌官	없음	△
穆克登	〃	〃	△
湛露	〃	〃	△
素納	〃	〃	△
史夢琦	〃	翰林院提調處	○
陸瑗	〃	未詳	○
裘行簡	〃	文淵閣檢閱內閣侍讀	○
盛惇崇	〃	內閣中書今任兵部主事	○

범례:△로 滿洲族, ○로 漢族을 표시함.

이 두 책의 편찬자들을 대조해보면 총재부터 일반 관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인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두 책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만주원류고』의 편찬인원은 모두 35명으로서 이들은 대체로 漢族과 滿洲族 두 계통으로 나뉜다.[13] 한족 관원 중 15명이 『사고전서』의 편찬에 먼저 참가했다는 내용은 확실하다.[14] 참

13) 淸史稿校注編纂小組, 『淸史稿校注』, 國史館.
14) 土雲五, 「四庫全書總目提要」 1, 國學基本叢書.

www.kci.go.kr

가하지 못한 3명에 대해 분석해 보면 提調官 吳雄光은 이 책이 편찬을 시작한 乾隆37년에 과거에 금방 급제하였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참여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나 그는 5년 사이에 官階에서 신속히 승진하여 『만주원류고』의 提調官이 되었다. 收掌官 陸瑗은 乾隆42년에 內閣中書란 낮은 관직에 있었는데 5년 전인 37년에는 아마 더 낮은 신분으로 『사고전서』에 이름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汪滋畹은 당시 翰林編修로서 陸瑗과 같은 인원들은 『사고전서』의 편찬인원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이 선발되었다.

만주족 관원의 관직을 살펴보면 총재인 阿桂, 和珅과 纂校官 平恕 세 사람만 위의 두 편찬원인으로 『사고전서』의 편찬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의 편찬에 한족은 모두 참가하였다. 만주족 관원의 관직을 살펴보면 문한직보다 행정직이 대부분이었고, 한족 관원은 文翰職을 맡았다. 이 책의 總裁人員에 대해 분석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全書』의 편찬 총재는 永瑢, 永瑆, 永琅, 劉統勳, 劉綸, 舒赫德, 阿桂, 于敏中, 英廉, 程景伊, 嵇璜, 福隆安, 和坤, 蔡新, 裘曰修, 王際華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족은 모두 과거 급제자였고, 만주족은 蔭敍의 혜택을 받아 仕途에 올랐다.[15]

『만주원류고』를 편찬하기 시작한 건륭 42年을 한계선으로 살펴보면 劉統勳, 劉綸, 舒赫德, 裘曰修, 王際華 등은 이를 편찬하기 전에 사망해서 總裁가 될 수 없었고, 英廉과 程景伊는 乾隆 41년에 永定河 事件과 不敬罪로 처벌을 받는 기간이었으므로 총재직을 맡을 수 없었다. 嵇璜과 蔡新을 볼 때, 전자는 청고종과 동갑이었지만 생일이 몇 달 앞섰고, 후자는 청고종보다 네 살이 더 많았다. 당시 乾隆도 68세로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힘들었다. 永瑢, 永瑆, 永琅과 福隆安은 皇子와 乾隆의 사위였다. 그들은 『사고전서』에 총재의 명예직만 걸었을 뿐,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지 못했기에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분석으로 미루어 보면 阿桂, 和珅, 于敏中은 『사고전서』 총재에서 『만주원류고』 총재 직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주원류고』를 편찬함에 있어서 될수록 『사고전서』의 총재를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부총재로서 학자인 王杰과 董誥를 발탁하여 총재 진을 보좌하였다. 사고전서 부총재 진영에서 위의 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는 학문 연령과 신체건강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王杰, 董誥, 曹文植, 彭元瑞, 金簡이 있다. 그러나 曹文植과 第一總裁인 阿桂의 개인 갈등이 그의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金簡과 彭元瑞가 『만주원류고』의 편찬에 참가하지 못한 점이 意外이지만, 당시 그는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 梁國治, 劉墉, 沈初, 錢汝誠은 연령과 건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총재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임명의 기회를 잃었다.

『만주원류고』는 『사고전서』의 인원들이 청고종의 지시와 만주족 관원의 감독 하에 완성한 역사서로서 만주족 국가가 관여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역사서였다. 두 책의 편찬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서로 연관성이 강한데 『만주원류고』도 『四庫全書』와 같이 청고종이 그 편찬에 대해 매우 중시했던 서적이었다. 『만주원류고』는 청조의 국사로서 여기에 나타난 역사체계는 만주족이 지향한 역사체계로 볼 수 있다.

3. 東夷歷史意識

이 책의 첫 부분에는 卷首란 이름이 적혀있고, 안에 提要, 上諭, 奏摺, 凡例가 차례로 있다. 提要에서는 이 책의 편찬은 청고종의 指示하에 실행함[16]을 밝혔는데, 이로부터 이 책의 편찬은 청고종의 聖旨를

15) 淸史稿校注編纂小組, 『淸史稿校注』, 國史館. 위 사람들의 열전을 참조함.
16) 『欽定四庫全書提要』, 「滿洲源流考乾隆四十三年奉敕撰」, 3~4쪽.

www.kci.go.kr

좇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편찬목적과 4문 체계의 분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모든 기록이 만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 머리에서 東土란 개념에 대해 강조하였다.[17]

동토의식 그리고 만주족이 빨간 과일에서 씨를 받아 선녀가 만주족 시조를 낳았다는 신화를 담았다.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의 開天辟地와 補天神話와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果發祥神話를 살펴보면 중요한 실마리는 종족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용이 천손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朱果는 새가 가져온 씨의 상징으로 신라의 새(金鳥)와 알(卵)신화와 연결된다. 부족기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는 한반도와 만주 심지어 山東半島까지 퍼지고 있다[18]. 만주족이 가진 민족적 정체성을 肅愼後裔와 연결시키면서 東夷란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卷首에서도 滿洲族이 肅愼으로부터 金과 靺鞨에 이르기까지 그 계승체계는 그들의 동이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그러나 만주족이 단독으로 동이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만주족 역사의 단절과 체제의 결핍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나서게 되었다. 東夷는 전통적인 한민족에 대한 명칭이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동이의식에 대해 강조하려면 한민족의 역사를 빌어야 적어도 보다 완벽한 형식으로 역사체제를 확립하고 동이의식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1) 部族門 목차에 담긴 동이체계

권 1부터 권 7까지는 부족문(部族門)이다[20]. 만주에 살았던 부족의 이름을 시간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첫 권, 즉 部族一 부분에서 滿洲·肅愼·夫餘를 나열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만주를 시간 순서와 별도로 맨 앞에서 기록한 점과, 만주의 이름을 肅愼과 夫餘보다 한 칸 높인 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만주족으로서 자체의 민족적 정체성을 높이는 일은 목차에도 나타났다.

권 2에서는 挹婁, 三韓, 勿吉을 部族二에 수록하였다. 읍루와 물길이 숙신의 계승자였다는 기록은 고대부터 중국의 사서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읍루와 물길에 관한 내용은 큰 영향이 없었으며 그 명칭의 유래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 이 목차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읍루와 물길 사이에 三韓을 삽입시켰다는 점이다.

권 3부터 권 6에 이르기까지 百濟·新羅·靺鞨·渤海를 각각 한 권씩 다루었고, 권 7에서 오히려 만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完顔·建州를 같이 다루었으며, 『金史·姓氏考』도 부록형식으로 첨부하였다. 위의 여러 국가는 역사기록이 상세하므로 한 권씩 다루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편찬자들이 백제와 신라를 만주족 중심의 동이권에 편입시킨 의도가 더욱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신라·백제가 말갈·발해와 연결성이 있다는 의

17) 「滿洲源流考」, 「卷首提要」, 3쪽.
洪惟我國家 朱果發祥 肇基東土 白山黑水 實古肅愼氏之舊封.

18) 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天孫神話는 檀君神話, 朱蒙神話, 柳花신화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東夷부족이 많이 살고 있던 山東에도 哪託神話란 천손신화와 유사한 신화가 많다. 또 인간과 하늘을 연결한 동물로 金鳥가 주목받는다. 만주족이 시조에 대한 朱果神話는 天孫과 金鳥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19) 「滿洲源流考」 卷首提要一, 3쪽.
在隋唐爲靺鞨 新羅 渤海 百濟諸國 在金爲完顔部, 一一訂异存眞辨妄.

20) 「滿洲源流考」 卷首 目錄, 21~2쪽.
卷一 部族一 滿洲 肅愼 夫餘, 卷二 部族二 挹婁 三韓 勿吉, 卷三 部族三 百濟, 卷四 部族四 新羅, 卷五 部族五 靺鞨, 卷六 部族六 渤海, 卷七 部族七 完顔 建州.

www.kci.go.kr

식은 목록에서 나타난 만주족의 부족의식임이 틀림없다. 발해는 만주족과 한민족이 같이 형성한 국가임이 확연하다. 발해를 이 체제에 편입시킨 내용은 상식적으로 백제와 신라를 이 역사체계에 넣고 편찬한 의도가 청고종이 구상한 동이의식의 範疇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청고종이 강조한 동이의식은 만주족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체계에서 나타난 의식은 만주족 범주를 확대하여 한민족도 포함하였다. 한족사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전통사관에는 이런 學說이 없었지만, 이 책에 반영된 내용이 과거에 숨긴 역사 사실에 대해 다시 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중국의 역사에서는 만주족이 국가를 형성하지 못해 세력이 미약할 때 한민족 계통 국가에 羈縻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 사실은 金國 건립 전의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조상 金函普 삼형제가 고려에서 만주로 이주하였던 기원신화에서도 한반도와 만주의 빈번한 교섭이 반영되었다. 또 청나라 건국 전에도 李滿柱, 童鐵目爾 등 만주족 酋長은 조선의 羈縻를 받은 적이 있다. 한반도 북방까지 만주족(여진족)과 고려·조선이 공존했던 지대로서, 고려나 조선의 세력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한반도의 역사를 만주역사와 근접시킨 의식은 정통론의 상식이지만 역사적 진실로 보기 어렵다. 이런 각도에서 만주족은 외부 압력이 없을 때 자유롭게 반영한 동이의식이 그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

이 책에 담긴 체계의 특징으로 만주족역사와 한반도의 역사를 서로 교체시키며 만주족의 역사가 결핍할 때 한반도역사를 넣어서 역사 체계를 完整하게 만들었고, 만주족 역사가 뚜렷한 기록이 있다면 한민족사를 상대적으로 잠재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삼한, 신라, 백제가 존재할 때 만주족의 역사는 모호하고 단절된 상태였다. 백제와 신라가 한 권의 분량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高麗와 朝鮮은 목차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위의 두 국가는 金·淸朝와 공존하며, 금·청과 조공의 예속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고려와 조선은 따로 편집할 필요가 없었다.

이 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권 1에서는 학계의 기존 정설과 달리 만주와 숙신에 이어 部族一에 夫餘를 기록하였다.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발원지로서 한민족의 역사에 속한다. 숙신 뒤에 이었던 원인은 숙신이 秦漢시대 역사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2에서는 三韓을 포함하였다. 부여는 만주족 체계에 속하여 지리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삼한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삼한을 분명하게 만주족 체계에 편입시켰다.三韓은 馬韓·弁韓·辰韓으로 구성되어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부족국가들이다. 삼한을 이 위치에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만주원류고』 편찬자의 민족의식을 뚜렷하게 반영한 목차 순서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한반도역사를 완전히 만주족 역사 체계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하였다. 삼한을 읍루와 물길과 함께 나열한 내용은 목차뿐만 아니라 卷首에서 '肅愼氏 이후 漢나라 때 三韓이 되었고, 魏晉때 挹婁가 되었으며, 元魏(拓拔氏)때 勿吉로 되었다[21]'고 기록한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다. 이 글에서 삼한이 이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일시적인 착오가 아니라 정설로 믿어서 확인한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만주족은 삼한과 숙신계를 연결한 역사적 체계 의식이 분명하였다.

신라는 삼한을 계승하였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들은 신라의 지배층이 주도한 羅唐전쟁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통일 국가가 되었다. 이후 신라고려·조선의 순서로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 있던 주체민족이자 주체국가였다. 그런데 『만주원류고』에서는 신라와 백제를 말갈, 발해와 동등하게 한 권씩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은 청고종의 동이의식이 한민족을 포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1) 「滿洲源流考」, 「卷首提要」, 3쪽.

www.kci.go.kr

2) 疆域門에 보이는 동이계승의식

제 2문인 疆域은 권 8부터 권 13을 차지한다. 권수 상에 있어서 강역문은 부족문보다 권수가 적지만, 분량을 보면 부족문이 각종 신화와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서 150쪽이고, 강역문은 204쪽으로 부족문보다 그 내용이 오히려 더 많다.

疆域 권 1에서 興京, 吉林, 黑龍江을 나열하였다. 이 세 곳은 오늘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해당한다. 만주족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만주족이 현실적으로 차지하였던 만주의 옥토이다. 만주족은 이 땅을 자신들의 기지로 삼고 封禁을 3세기 동안 유지해왔다. 만주족에게 있어서 매우 신성한 발상지이다. 興京을 기록할 때 한 칸 擡頭 격식을 가졌다. 이 부분에 현재의 遼寧, 吉林, 黑龍江만 있는 것이 아니고, 三韓에 대한 설명도 기록했다. 내용으로 보면 三韓分地, 三韓屬國, 三韓故地, 馬韓都督府, 辰州, 三韓縣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다. 오히려 숙신부터 읍루까지 계승한 부족의 강역 기록보다 상세하다.

권 2에서 沃沮, 濊, 勿吉, 百濟, 新羅, 靺鞨, 黑水府를 수록하였다. 沃沮와 濊는 부족에 없는 내용이고, 신라를 설명할 때 鷄林에 대한 설명이 한반도에서 주장한 설명과 다르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말갈의 강역을 표시하면서 黑水府에 대해 특별히 기재하였다. 흑수부는 청나라가 계승의식을 가진 금국의 발상 부락이다.

권 3에서 渤海國境을 큰 주제로 잡았고 忽汗州에서 출발하여 발해의 五京, 十五府, 六十二州의 행정기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발해를 단독으로 한 권으로 편찬하고, 州마다 제목을 달고 기록을 남겼다. 신라도 新羅九州란 제목으로 다룬 적이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다.

권 4에 遼 東北地界[22]란 주제에서 거란족이 세운 遼가 만주에 설치한 행정기구를 기록하였다. 요는 南北(樞密)院으로 중원과 동북에 있는 강역을 다스렸다. 지금 보이는 내용은 발해를 계승한 北院의 강역이다.

권 5에서 金의 疆域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였지만 金上京, 夫餘路, 海蘭路, 率賓路, 哈斯罕路, 遼陽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이곳들은 고구려, 발해, 금의 발상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 심지어 주몽에 대한 신화도 많이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6권에서 元朝가 동북에 설치한 행정 기구를 기록하였고, 부록 형식으로 명이 설치한 衛所를 첨부하였다.

이 강역문을 기록할 때 부족문보다 내용이 충실할 뿐더러 지명의 시대별 변화도 명확하다. 한 지명을 적고 과거의 이름, 현재의 지명, 인구, 부근의 산천, 역사적인 掌故 등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 부분은 동이의식을 중심으로 지리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특히 지명의 연관성과 그 계승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목적은 만주에서 발생한 정권의 선후 계승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위함에 있었다.

4. 東夷意識에 존재하는 문제점

『만주원류고』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국가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동이의식에 대해 강조한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전통적으로 만주족에 속한 종족과 한민족에 속한 민족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같다. 이런 비중은 동이의식이 만주족사이에 존재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동이의식을 이해하는데 제기되고 아울러 새로운 연구단서가 된다.

22) '遼東北地界'를 보면 '遼, 東北地界'나 '遼東, 北地界' 두 가지 標點法이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정확하다고 본다.

www.kci.go.kr

1) 新羅에 대한 지리적 의문

한반도에 있는 국가와 종족에 대한 언급 중 신라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분량을 고찰해도 新羅가 한 권을 할애하였고, 이 외에 각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신라의 별칭 鷄林이 바로 吉林이란 주장은 신라를 만주족 역사체계에 편입하여 동이의식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신라를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하였다.

四門 一曰部族 自肅愼氏以后, 在漢爲三韓, 在魏晋爲挹婁, 在元魏爲勿吉, 在隋唐爲靺鞨新羅渤海百濟諸國, 在金爲完顔部, 幷一一考訂異同 存眞辨妄, 而索倫 費雅喀 諸部毗連相附, 亦幷載焉.[23]

위에서 '隋唐시절에 靺鞨新羅渤海百濟諸國으로 되었다'는 구절을 보면 靺鞨新羅渤海百濟는 서로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 肅愼의 후예로 이해하였고, 이들의 부족국가가 金에 의해 통일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들은 '統一海北朝鮮諸部'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靺鞨新羅渤海百濟'를 숙신의 후예로 이해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권수의 提要, 卷首, 凡例에 두 곳[24]이 있고 , 卷一[25]에 네 번 나타난다. 또 신라를 직접 숙신의 후예로 서술한 경우도 있다. 신라를 발해와 같은 동이종족으로 이해하고, 금이 신라와 발해를 함께 계승한 의식이 분명하다.[26]

신라를 금 왕실의 발원으로 인식한 내용은 『金史·世紀』에 있는 내용이다. 이 전설을 이 책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금이 녹지 않는 원인으로 금이란 이름을 취한 전설에 대해 부정하고, 完顔氏가 신라의 金씨에서 왔다고 하였다. 또 금의 국토가 청의 발상지와 윤곽이 같다고 하였다[27] . 금의 시조가 신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라의 별칭 계림과 만주족의 주요 기지인 길림의 연관성에 대해 첨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鷄林卽今吉林, 鷄與吉音旣相符, 核諸地里亦合, 蓋在龍朔時旣兼二國與靺鞨渤海壤地相錯, 設重鎭于此. 而王自領之后相沿世襲, 其號雖吉林故地, 旋歸渤海, 而都督之號 仍系新羅, 鷄林遂爲新羅之通稱.[28]

鷄林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鷄林(jī lín)'으로 된다. 吉林도 중국어로 발음하면 '吉林(jí lín)' 으로 계림과 비슷한 발음이 된다. 현대의 발음에서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조가 서로 다른데, 鷄(jī)자는 1성이고 吉(jí)은 2성이다. 성조의 차이는 현재 중국의 방언에서 차이가 크다. 성조의 차이를 따지지 않는다면 두 단어의 발음이 완전히 같다. 이런 점을 사용하여서 계림이 바로 길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이 이 책에서 세 번[29]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내용에 대해 109쪽부터 138쪽까지 서술하였다. 신라의 개국에 대해서부터 서술하였는데 신라의

23) 「滿洲源流考」「卷首提要」, 3쪽.
24) 「滿洲源流考」, 「卷首 凡例」,17쪽.
25)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二, 50쪽.
太宗文皇帝鴻圖式廓遐邇景從 東北諸部盡爲臣僕 稽諸古 昔若肅愼 夫餘 三韓 靺鞨 百濟 新羅 渤海 女眞諸國 沿革可徵. 淮南子云 東方多君子之國 信矣.
26) 「滿洲源流考」 卷十六, 國俗, 579쪽.
冠服騎射相需爲用, 肅愼夫餘制度簡質, 新羅渤海漸事文飾, 金興而返質還淳, 務從其朔.
27) 「滿洲源流考」 卷七, 部族四, 謹案. 186쪽.
金祖本新羅來 號完顔氏 所部稱完顔部.新羅王金姓 則金之遠祖 派出於新羅 所居有白山黑水之境 二千里 而遙固與本朝肇興之地 輪廣相同.
28) 「滿洲源流考」 卷四, 部族 十四, 136쪽.
29) 「滿洲源流考」, 135쪽.
唐時所稱鷄林應卽吉林之訛 而新羅 百濟諸國 亦皆其附近之地 故昔人無能考證者.

www.kci.go.kr

중대한 일은 거의 모두 수록하였다.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은 金眞平이 加羅 任那諸國에 대한 정벌이었다. 다음으로 善德女王과 동생 眞德女王에 대한 서술이었다. 또 김춘추 김법민이 당군을 요청해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였고, 신라의 풍토와 중국과의 조공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3쪽에서 신라와 길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렇게 보면 신라를 동이계통의 국가로 인식한 내용이 분명하다. 그 원인은 신라와 같은 시대에 있는 만주족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2) 三韓에 상통하는 언어적 문제점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만주족 사관들은 동이권 언어에 대하여 잘 안다고 자부하였다. 현실적으로 만주족이 몽고어에 대하여 능숙하고 또 적지 않은 만주족은 조선어도 알고 있었다. 만주족은 만주어로 한민족의 역사사료를 해석한다. 이런 조건은 한어만 알고 있는 한족보다 동북아의 언어를 분석할 때 유리하였다.

夫餘條를 살펴보면 부여에 六畜의 이름에 '加'자를 붙여서 馬加, 牛加, 狗加 등 이름을 만들었다. 그 출처인 『後漢書』와 『三國志』를 살펴보면 저자인 范曄과 陳壽가 인격상의 하자까지 酷評[30]하였다. 이로부터 두 책의 신빙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加'자는 '家'에 해당한데 馬加는 典馬 즉 말을 관리하는 관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에서 표방한 내용은 부여에 대한 기록이 한족 史家인 範曄과 陳壽의 잘못된 해석으로서 그들이 기록한 동이에 대한 기록은 믿을 수 없다[31]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를 돌파구로 삼으면서 편찬자들은 부여에 대해 筆墨을 쓰지 않고 숙신이 漢나라 시기의 三韓이라고 주장하였다.

삼한의 扁頭 현상에 대하여 중원사가의 해석이 심상치 않은 듯 옛 사가의 주장을 도리에 어긋나는 이상한 설명이라고 하였다[32]. 삼한의 편두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삼한의 위치가 만주족의 발상지인 盛京(오늘 요녕)과 길림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辰韓의 편두 현상과 만주의 편두 현상을 같은 원인으로 귀결시켰다[33]. 이로부터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진한과 서로 같다고 밝혔다. 즉 삼한의 扁頭는 만주족의 신생아를 요람에 넣어서 키우는 방법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편두 현상에 대한 설명의 본질은 삼한의 풍습이 만주족과 같다는 주장에 있었다.

한민족의 언어를 만주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몇 개의 단어를 예를 들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먼저 '王'이란 단어를 예로 들면서 삼한에 있는 卑離란 단어와 연결시켰다. 삼한 부족의 이름을 볼 때 '卑離(bēi lí)란 두 글자가 항상 붙어 있다는 예를 들었다. '監奚卑離, 內卑離, 辟卑離, 如來卑離'를 만주어로 考證하면 貝勒[34](bèi lè)의 음에서 전해왔다고 주장한다. 汗에서 韓이 유래되고, 삼한(三汗)아래 貝

30)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五, 56~7쪽.
(范)蔚宗以附彭城王義康謀反 伏誅. 陳壽索米爲人作佳傳 其人皆不足取 其言又何足以据乎.

31) 「滿洲源流考」,卷一, 部族五, 「御製夫餘國傳訂訛」, 56쪽.
訝其誕詭不經 疑有外諛 命館臣覆勘其說 實本之后漢書及三國魏志夫餘之文. 於是嘆範尉宗 陳壽之徒不識方言 好奇逞妄 疑誤後人而更惜郝經之失於裁擇也.

32) 「滿洲源流考」, 卷首, 上諭, 5쪽.
三韓傳稱 辰韓人兒生 欲令頭扁 皆押之以石. 訝其說之悖於理 而肆爲詭誕以惑世也. 夫以石押頭 壯夫且不能堪 而以施之初墜地之小兒 實非人情所宜有.

33) 「滿洲源流考」,卷二 部族三, 69쪽.
三韓建國本末諸史 率多牴牾 以方位准之 蓋在今奉天東北 吉林一帶壤接朝鮮. 與我國朝始基之地
相近. 國朝舊俗 兒生數日 卽置臥具. 令兒仰寢其中 久而腦骨自平 頭形似扁 斯乃習而自然
無足爲異 辰韓或類是耳.

34) 「淸太宗實錄」 卷14, 15-6쪽.
1632년에 제정한 「諸貝勒大臣各官祭葬例」 문서에 '貝勒薨 上賜紙万張 羊四只 酒十瓶'이란 기록이 있다. 이 글에서 貝勒 뒤

www.kci.go.kr

勒를 통솔한 것이 삼한에 많은 卑離國이 있는 체제와 일치하다고 주장하였다[35].

만주어에서 貝勒은 왕이란 뜻이다. 만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북경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王府를 아직도 貝勒府라고 부른다. 貝勒의 발음이 발음 표기법에서 'bèi lè'이고 卑離은 'bēi lí'가 된다. 그러나 만주족식 北京식 발음에서는 'bèi lè'와 'bēi lí'의 운모가 경성으로 발음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만주족식 발음에서 이 두 발음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만주족의 발음에서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韓과 汗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인식은 三韓을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킨 의도에서도 나타난다. 三韓이란 용어는 고려의 각종 서적과 실물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만주족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족은 삼한이 고려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고려가 삼한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36].

韓이란 이름이 몽고와 만주의 임금을 표시한 汗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삼한을 세 임금이 있기 때문에 삼한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하면서, 汗자가 韓자로 된 것은 언어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삼한을 몽고나 만주와 같은 민족임을 강조한 내용을 사실상 만주족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는 삼한이 三汗의 나라 체제에서 많은 국가를 다스린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사실이다. 이렇게 삼한과 만주족, 그리고 몽고의 북방민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숙신이 한나라 시기의 三韓이란 주장을 위하여 증거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37].

삼한이 한나라 시기의 숙신을 대신하고, 신라와 백제가 삼한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나라가 신라의 계승자란 입장을 밝히고, 三韓, 新羅, 金, 滿洲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完顔씨가 과거에 고려에서 이주한 점과 달리 신라에서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멸망한 신라와 금의 연결을 강조한 의도는 앞에서 서술한 동이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신라와 금이 같은 동이족이란 근거는 삼한에 대한 서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한 언어와 만주족 언어가 서로 상통하는 점도 중요하다.

3) 高句麗 신화에 존재하는 문제점

고구려는 한민족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인식한 고려가 한민족의 민족적 성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앞부분의 목차에 있어서 신라와 백제를 발해, 말갈과 같이 병렬하여 각각 한 권의 분량을 차지했지만, 고구려는 목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신라, 백제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구려를 기록할 때 부여, 발해, 말갈 등을 기록할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부여조가 모두 9쪽인데 고구려에 대한 각종 기록은 6쪽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의 신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신화는 朱蒙이 주인공이다[38]. 주몽이란

에 왕의 죽음에 대한 '薨'자를 사용하였다. 貝勒은 滿洲語에서 王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滿洲源流考」, 卷二 部族七, 76쪽.
按:三韓統名辰國 自漢初已見. 后爲新羅百濟所幷. 其七十八國之名備載於魏志. 國名多系以卑離二字 如監奚卑離 內卑離 辟卑離 如來卑離. 以滿洲語考之 當爲貝勒之轉音 正猶汗之訛爲韓. 而三汗之統諸貝勒於體制恰相符合也.

36) 「滿洲源流考」, 卷二 部族七, 77쪽.
有以三韓爲高麗者 蓋因宋史高麗傳有崇寧后鑄三韓通寶之文. 又遼史外紀, 遼時常以三韓國公爲高麗封號. 遂謂三韓之地盡入高麗 不知高麗之境 地亦屬三韓所統 當時假借用之未經深考耳. 遼之三韓縣 乃取高麗俘戶所置 非其故壤也.

37)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五, 57쪽.
蓋國語及蒙古語 皆謂君爲汗. 韓與汗音相混 史載三韓, 各有數十國 意當時必有三汗分統之. 史家旣不知汗之爲君 而庸鄙者至誤韓爲族姓 中外語言不通 不能强爲詮解者 勢也.

38)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八, 62쪽.
按: 今滿洲語 稱善射者謂之卓琳莽阿. 卓與朱音相近 琳則齒舌之餘韻也. 莽阿二字急呼之音近蒙 傳寫雖訛 音解猶有可考也.

www.kci.go.kr

이름은 활을 잘 쏜다는 의미에서 按의 형식으로 주몽의 이름에 대해 해석하였다. 만주어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卓琳莽阿라고 부른다. 卓(zhuō)가 朱(zhū)와 발음이 가깝고 莽(mǎng)阿(ā)를 빨리 읽으면 蒙(méng)과 비슷하다고 해석하였다. 주몽은 만주어의 발음에서 나온 이름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만주어로 고구려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신화보다 신라와의 연결을 강조하며 完顔씨는 신라의 金씨에서 유래되었다고 집착하였다.

다음 북방에 槀離란 나라가 있고, 동명왕이 이 나라의 임금과 侍婢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39] 부여의 내용에 槀離란 나라가 북방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按에서 槀離의 발음이 '索離'라고 하였다. 한어로 발음하면 '索離(suǒ lí)'가 된다. 이로써 槀離(gǎo lí)가 고구려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부여 왕이 하백의 딸을 일찍 얻어서 실내에 두어 한 갈래의 빛이 비추어 주몽이 태어났다는 신화와 부여에서 쫓겨서 도망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이 책에서 열거한 두 신화로부터 우리는 槀離가 고구려란 점을 알 수 있다.[40]

여기서 고구려는 부여의 계승국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여보다 내용이 풍부한 점에도 불구하고 부여는 목차에 실려 있고 내용이 많은 고구려는 오히려 빼놓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그들은 부여, 고구려, 옥저의 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부여의 왕을 濊王이라고 하면서 부여가 멸망한 후 沃沮로 피난하였음을 열거하며 예, 부여, 옥저를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 다음 國俗에서 옥저는 '窩集'란 만주어에서 숲이란 뜻으로 해석했다[41]. 여기에서 옥저를 이용하여 부여와 만주족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하였다.

고구려가 부여에서 온 사실을 긍정하고 또 부여가 槀離에서 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槀離는 高句麗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槀離는 읍루와 가까이 있는 唇齒之邦임을 강조하였다[42]. 여기에서 고구려의 신화와 종족을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종족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면서도 고구려를 단독으로 서술하지 않고 은밀하게 소개하였다. 그 원인은 고려와 금나라가 병존하고 금과 조공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씨가 창건한 高麗가 高句麗를 부흥한 의미에서 국명을 취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高麗를 회피하였다.

4) 발해에 대한 인식

만주족은 말갈과 발해에 대한 계승인식을 신라, 백제와 달리 疆域편에서 많이 소개하였다. 만주족은 발

39)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七, 魏略, 60쪽.
昔北方有槀離之國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婢 云 有氣如鷄子來下 我故有身. 后生子名曰東明. 東明善射 王恐奪其國 也欲殺東明. 東明走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鱉浮爲橋 東明得度. 因都王夫餘之地. (按, 槀離后漢書作索離 注云索音度洛反, 通典作橐離. 非高句驪之高麗也. 惟隋書直作高麗合爲一國 誤.

40) 『滿洲源流考』 卷一, 「御製夫餘國傳訂訛·隋書」, 61~2쪽.
夫餘王嘗得河伯女 閉於室內 爲日光隨而照之 感而遂孕生一大卵. 有一男子 破殼而出 名曰朱蒙. 夫餘之臣咸請殺之. 其母以告朱蒙. 朱蒙東南走遇一大水. 朱蒙曰 我是河伯外孫 日之子也. 今有難而追兵且及 如何得渡. 於是魚鱉積而成橋, 朱蒙遂渡. 朱蒙建國 號高句麗.
(北史) 夫餘王狩獵於田 以朱蒙善射 給一矢 殪獸甚多 夫餘之臣謀殺之. 朱蒙乃與焉違等二人 走至紇升骨城居焉 號曰 高句麗.

41)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六, 「御製夫餘國傳訂訛·晉書」, 59~61쪽.
夫餘在元菟北千里 其王印文稱 濊王之印. 國中有古濊城 武帝時頻來朝貢. 至大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死 子弟走保沃沮. (59쪽)夫餘國本濊地也, 漢武帝元朔年 以其地爲滄海郡 數年乃罷. 至元三年滅朝鮮 分置樂浪 臨屯元菟 眞番四郡. (60쪽)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 鮮卑强 度以夫餘介其間 妻以宗女.

42)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六, 「御製夫餘國傳訂訛·魏時百濟所上書」, 59~61쪽. 64쪽.
高句麗出自夫餘 夫餘出索離 (中略) 槀離與高麗實二國也 槀離國見於遼史爲韓州鳳州 俱在開元西北境外, 與挹婁實爲唇齒之邦也.

www.kci.go.kr

해의 강역을 전체적으로 계승한 점에 대해 많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서 만주지방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지방마다 발해시기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풍속에 대해 살펴보면 발해의 풍속이 만주족에 많이 남아있다고 서술하였다.

발해를 粟末말갈과 연결시키지만 흑수말갈과의 연결은 많지 않다. 渤海, 金, 滿洲의 계승의식은 과거부터 있었던 의식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강역과 풍속의 계승에 대해서만 많이 수록하고 부족에서는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만주지배층은 자신들이 발해를 계승한 점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금나라를 건국할 때, 金太祖 完顔阿骨打가 발해유민을 招諭할 때 여진과 발해는 '本同一家'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金朝는 발해에 있는 고구려 유민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을 모두 발해유민이라 지칭했다. 그 원인은 그들이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부여, 삼한, 신라, 백제, 발해는 청의 역사체계에 들어간 셈이다. 즉 목차에 나타난 내용인 만주족계통과 한민족 계통을 합하여 肅愼, 夫餘, 挹婁, 三韓, 勿吉, 百濟, 新羅, 靺鞨, 渤海, 完顔씨의 金, 建州의 滿洲 체계를 완성하고 동이의식을 세웠다. 이런 의식은 청고종 때 일부 내용이 정치적 수요에 의해 가공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완전한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내용은 그들에게 오래 유래된 역사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맺음말

금나라가 멸망된 후, 대다수의 백성은 만주로 철거하지 못하고 중원에 머물면서 한족과 동화되었다. 청의 지배자들은 북경에 정착한 후, 금나라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滿漢 격리정책도 취하고, 만주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북경 만주족의 한족 동화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청고종은 나이가 들수록 민족동화에 대한 걱정이 심해져 언어교육을 강화하면서 만주족 역사에 대해 손을 댔다. 그는 만주족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족을 중심으로 전통 동북아 민족관계에 대해 만주족을 중심으로 이해했다. 특히 같은 동북아에 있던 민족관계를 만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이의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만주에 있는 부족을 모두 만주족의 역사체계에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역사도 포함하여서 만주족 역사가 모호할 때 한민족역사를 편입하여 역사체계를 완벽하게 보강하였다.

청고종과 편찬자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동이의식이 脈이 된 만주역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에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만주족의 민족동화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북경에 진입한 만주족은 중국의 역사와 언어를 매우 잘했다. 그러나 한화정도가 높을수록 자신들의 기원과 민족정체성에 대해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고종은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책을 편찬하여 본 민족자제들의 返質還淳을 요구하였다. 만주족 역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또 완벽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만주족의 역사체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한민족역사를 편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완벽하고 연관성이 있는 만주사를 정리했다. 그 기저에 있는 사상은 동이의식이다. 필자는 청고종이 주장한 동이의식은 만주족 지배자들의 정치수요에 의해서 형성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북아 민족관계에 대해 이해할 때 東夷意識이 만주족사이에 있었다고 본다. 동이의식은 청고종이 만주족에게 오랜 시간 유전된 의식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그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동이의식은 중국과 한국이 인식한 만주족의 역사 체계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만주족에 의하여 기록된 역사도 꼭 틀린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이 만주에 머물 때 가지고 있던 동이의식은 문자로 체계화되지 못했지만, 만주족 사상에는 분명히 있었다. 또

www.kci.go.kr

한국사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다. 이 내용은 다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을 보면 夫餘, 三韓, 新羅, 百濟 등 전통적인 한민족 부족들을 만주족 역사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킨 의도가 엿보인다. 전통적으로 만주족의 계보관계를 살펴보면 肅愼, 挹婁, 勿吉, 靺鞨, 渤海, 金, 建州(後金), 淸 등 순서이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계승관계를 타파하고 한민족의 역사와 만주족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동북아 민족관계를 東夷意識에 편입시킨 사관이 가장 주목된다. 이 책을 살펴보면 만주사가 결핍할 때 한민족의 역사를 가져와 보완한 사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부여, 삼한, 신라, 백제의 역사를 만주 기원과 연결할 때 만주족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서에도 그 기록이 모호하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존의 상식을 타파하고 한민족의 일부 역사를 가져와서 만주족 역사에 넣어 만주족의 역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런 특징으로 만주사 동이의식에서 高麗와 朝鮮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 만주족 사관들이 한반도 역사를 만주 역사에 편입시킨 의도가 뚜렷하지만, 만주의 역사기록이 뚜렷했던 금과 청이 있을 때 高麗와 朝鮮은 이 책의 역사적 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고려와 조선에 연결될 수 있는 고구려마저 내용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차에서는 삭제하였다. 조선과 연결된 檀君朝鮮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의 교체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다. 이런 점이 동이의식에서 극복하지 못한 약점이다.

이 책은 비록 만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이의식에 약점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청고종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만주족의 소박한 역사지식에서 동북아 민족의 원류를 이해하는데 전통적인 생각과 다른 각도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과거의 일부 역사가 만주족의 기억에 담겨있을 수도 있다. 이로부터 이 책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이 책을 반복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주족의 주변민족 사관에 의하여 서술된 전통적인 사관과 견해의 차이가 있다. 역사자료는 원시 상태 보존의 타당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만주족이 직접 편찬한 사서는 그들에 대해 연구할 때 그 연구가치가 크다. 만주족과 한민족관계에 대해 연구할 때 이 책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바란다.

基本史料

『滿洲源流考』
『四庫全書』
『金史』
『淸高宗實錄』
淸史稿校注編纂小組, 『淸史稿校注』, 國史館.

參考論著

金九鎭, 『13-17세기 女眞族社會의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金庠基, 「金의 始祖에 對하여」, 『國史上의 諸問題』 5, 1959.
金謂顯, 『契丹的東北政策』, 台北: 華世出版社, 1981.
李龍範, 『中世東北亞細亞史硏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www.kci.go.kr

李東馥, 『東北亞細亞史硏究』, 서울: 一潮閣, 1986.
李東源, 『渤海史譯文集』(譯), 黑龍江社會科學院曆史所.1986,
朴玉杰, 『高麗時代 歸化人硏究』, 國學資料院, 1996.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3.
朴殷植, 『東亞日報』, 1923년 11월 4일.
朴仁鎬, 「明淸代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對朝鮮 역사지리인식」, 『경북사학』 21기, 1998.
季永海, 「大淸全書硏究」, 『滿語硏究』, 1990. 2.
季永海, 「滿族轉用漢語的歷程與特點」, 『民族語文』 6期, 1993.
王雲五, 『四庫全書總目提要』 1, 國學基本叢書.
伊永文, 『明淸飮食硏究』,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7.
趙杰, 『北京話的滿語底層和'輕音''兒化'探源』, 北京燕山出版社, 1994.
Pamela Kyle Crossley,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4(November 1987).

요 약 문

동북아 지역에서 발원한 만주족은 중원에 진출하여 청조를 세우고 지배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백여 년의 세월을 거쳐 만주족은 민족의 동화를 겪으면서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淸高宗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官撰으로 滿洲源流考란 책을 편찬하였다. 청의 민족 기원을 밝힌 국사를 편찬한 것이었다. 淸高宗은 이 사업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華夷史觀을 타파하고, 새로운 東夷意識에 대해 강조하면서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민족관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러나 만주족의 역사체계가 斷篇적이고 缺損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역사 체계를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위하여 한반도와의 유대감을 강조함과 더불어 그 역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사체계를 보완하였다. 특히 金朝의 지배 부족인 完顔部의 시조가 신라의 왕족인 金氏에서 유래하였다는 내용은 한반도 고대사가 만주족이 주장한 동이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청고종이 강조한 동이의식은 청고종 개인의 역사의식이라고 하기보다 만주족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민족기억에 담겨 있는, 만주와 한반도 관계사라고 주장한다.

key words: 1. Researches on Manchu Origins(滿洲源流考) 2. Manchuria(滿洲) 3. 東夷意識 4. compose by Government (官撰) 5. Korea peninsula(韓半島) 6. Silla(新羅) 7. the collection of four library (四庫全書) 7 Qing qianlong (淸高宗)

www.kci.go.kr

《滿洲源流考》和清高宗的東夷意識

方 京 一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研究生）

《滿洲源流考》是從滿洲人的理解角度闡述了滿洲的民族和部族國家起源的國史。 起源于東北亞的滿洲(清朝)在1644年入主中原， 成爲了中國最后一个征服王朝的統治民族。 但是一百年后，在北京出現了嚴重的滿漢兩族同化現象。 清高宗(乾隆)爲了阻止民族同化， 選拔了《四庫全書》的編撰人員， 以官撰的形式刊行了《滿洲源流考》。 在這本書中徹底抛弃了傳統的漢族爲中心的華夷史觀， 强調了嶄新的東夷意識。 這种思想以滿洲(族)爲中心， 揭示了東北亞的民族關系。 但是滿族的歷史体系有很多缺損部分，无法建立完整的歷史体系， 爲了克服這樣的問題， 他們强調了滿洲与韓半島的紐帶關系， 通過韓半島的歷史補充了滿洲史。 尤其是以金朝的統治部族完顔部的始祖來源于新羅的王族的內容爲線索， 强調了韓半島古代与滿洲的緊密關系。 其實以上的東夷意識不僅是清高宗个人思想， 更是大量存在于滿洲人中世紀的記憶中。 這个記憶對恢复東北亞文化圈具有重大的意義。

www.kci.go.kr